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청양군의 사회적 인구 변화 분석

윤 정 미 · 조 영 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실 선임연구위원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청양군 사회적 인구 이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기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청양군 사회적 인구 시계열 변화를 분석함

CONTENTS

1. 연구 개요
2. 청양군 전입·전출 시계열 변화분석
3. 청양군 전입·전출 사유
4. 청양군 주요 전입·전출지 분석
5. 결론

요약

- 인구데드크로스(인구출생률<인구사망률)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소멸을 대응하고 있고, 청양군에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 추진을 위해 청양군에 유입되고 유출되는 인구에 대한 시계열 분석 자료가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양군 10년간 사회적 인구(전입·전출인구) 변화를 분석하였음
- 분석한 결과 청양군은 사회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전입>전출, 2020년 250여명의 순이동)
- 청양군 사회적 인구의 이동 특성은 충남도내의 전입·전출 많음(30~40%)
- 청양군민의 주요 전입·전출지는 대전광역시, 세종시,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도내 이동임. 특히 인접한 공주시의 전입·전출 인구가 많음
- 생산가능인구의 전입·전출이 80%를 넘으나 2012년과 2022년 비교 시 전입 239명 증가, 전출 13명 감소로 사회적 인구가 다소 증가한 연령대이기도 함
- 확대 청년 전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전출 비율 50%를 넘음(확대 여성 전출 비율도 25%를 넘음)
- 전입 사유로는 직업으로 인한 전입이 높으며,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입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
- 전출 사유로는 과거에는 가족으로 인한 전출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족과 직업으로 인한 전출이 높음
- 청년들의 전입·전출 사유는 일자리이며 확대 청년들의 경우 교육으로 인한 전입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
- 고령자는 가족으로 인한 전입이 주요 사유이나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입이 증가하고 있음. 전출은 압도적(40% 이상)으로 가족으로 인한 전출임

01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데드크로스 및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 및 마을소멸 위기 의식이 확대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소멸을 대응하고 있고, 청양군에서도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소멸 대응을 위해 정주민, 생활인구 등의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양군에 유입되고 유출되는 인구에 대한 시계열 분석 자료가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양군 10년간 사회적 인구(전입·전출인구)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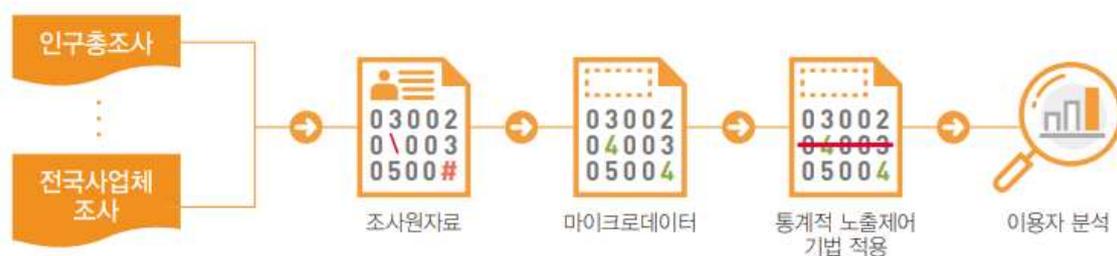
2. 연구의 내용

- 마이크로데이터 설명
- 청양군 전입·전출 시계열 변화분석
 - 최근 10년간 인구구조별 전입·전출 변화, - 최근 10년간 주요 연령별 전입·전출 변화
- 전입·전출 사유
 - 전체 연령의 전입·전출사유, - 확대 청년(20-45세)의 전입·전출 사유,
 - 확대 여성 청년(20-45세)의 전입·전출 사유, - 고령자의 전입·전출 사유
- 청양군 주요 전입·전출지 분석
 - 주요 전입지 현황, - 주요 전출지 현황

3. 마이크로데이터?¹)

1) 마이크로데이터란?

-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에서 개인정보, 입력오류, 논리오류 등을 수정한 조사개별 단위(개인, 가구, 사업체별 등) 자료를 의미
- 또한, 자료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 정보의 노출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에 대해통계적노출제어 기법을 적용하여 제공



〈그림 1〉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수집과 이용 과정

자료 : 통계청, 2022, 마이크로데이터 이야기, p.8

- 마이크로데이터는 이처럼 집계단위별 자료가 아닌 개별자료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가공·활용할 수 있음

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란?

- 통계청에서는 심층 연구·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특히 2015년부터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 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시작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센터(MDIS)는 '국가 주요정책 수립, 기업 경영전략 수립, 학술논문 등 심층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통계청은 자체 작성하는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 타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MDIS 운영

1)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
통계청, 2022, 마이크로데이터 이야기

- 제공은 21개의 주제로 분류하며, 인구, 사회일반, 범죄안전, 복지, 주거·국토이용, 농림/수산, 정보통신/과학기술, 지역통계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그림 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주제

자료 : 통계청, 2022, 마이크로데이터 이야기, p.9

4. 사용 데이터

- 사용한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센터에서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 사용
-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인구관련연관 자료를 2012년, 2017년, 2022년 3개년도 자료 활용
-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1〉 데이터 현황

| 구분 | 내용 |
|--------|-----------------------|
| 사용 데이터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
| 시계열 시점 | 2012년, 2017년, 2022년 |
| 공간 단위 | 시군구 단위 |

02

청양군 전입·전출 시계열 변화분석

1. 전입·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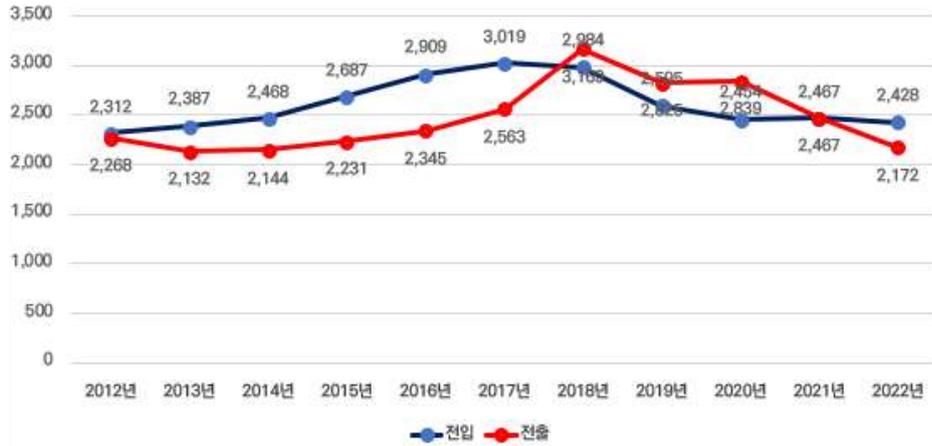
- 청양군 10년간 전입·전출인구 분석 결과 2018~2020년을 제외하고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더 많아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있는 지역임
- 특히 2015~2017년은 약 500여명의 순이동(전입-전출)이 있었으며, 작년 2022년에도 약 250명의 순이동이 나타나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표 2〉 전입·전출 현황

| 구분 | 총전입인구 | 총전출인구 | 증감(전입-전출, 순이동) |
|-------|-------|-------|----------------|
| 2012년 | 2,312 | 2,268 | 44 |
| 2013년 | 2,387 | 2,132 | 255 |
| 2014년 | 2,468 | 2,144 | 324 |
| 2015년 | 2,687 | 2,231 | 456 |
| 2016년 | 2,909 | 2,345 | 564 |
| 2017년 | 3,019 | 2,563 | 456 |
| 2018년 | 2,984 | 3,169 | -185 |
| 2019년 | 2,595 | 2,825 | -230 |
| 2020년 | 2,454 | 2,839 | -385 |
| 2021년 | 2,467 | 2,467 | 0 |
| 2022년 | 2,428 | 2,172 | 256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청양군 관내이동 제외)

- 2022년을 기준으로 5개년 시계열 분석 결과 2017년의 전입·전출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과 2022년 두 시점 분석 결과 전입 인구가 116명 증가되었고, 전출인구는 96명 감소하였음



〈그림 3〉 사회적 인구 증감 변화

- (청양군 내부이동) 청양군 읍면간 이동은 2012년과 2017년 525명, 2022년 423명으로 많은 인구가 청양군 내부 이동
- (충남도내 이동) 2012년 31.1%(719명), 2017년 37.6%(1,136명), 2022년 37.8%(918명)의 충남도 거주자가 청양군으로 전입하여 충남도내 거주자의 청양군 전입이 늘어나고 있음
- (충남도내 이동) 2022년 37.2%, 2017년 42.2%, 2012년 36.9%가 충남도로 전출하여 충남도로의 전출자도 다소 증가

〈표 3〉 10년간 전입·전출 현황(명, %)

| 구분 | 총전입 | 총전출 | 순이동 | 관내 이동 | 충청남도내 전입 | 충청남도내 전출 |
|------|-------|-------|-----|-------|----------|----------|
| 2012 | 2,312 | 2,268 | 44 | 525 | 719 | 838 |
| 2017 | 3,019 | 2,563 | 456 | 525 | 1,136 | 1,081 |
| 2022 | 2,428 | 2,172 | 256 | 423 | 918 | 808 |

주. 총전입은 관내이동을 제외한 숫자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2. 최근 10년간 인구구조별 전입·전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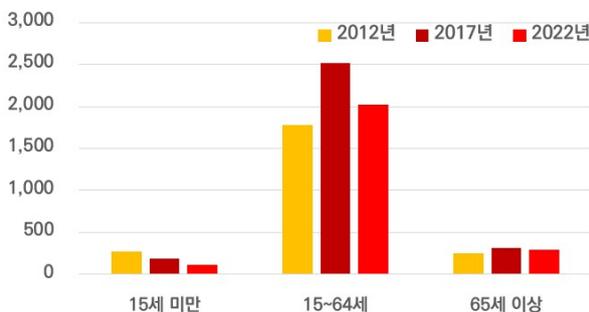
- (15-64세) 주요 전입·전출 연령은 15-64세가 80%를 넘음
- (15-64세 전입인구) 2012년 1,781명, 2022년 2,020명으로 239명 증가, (15-64세 전출인구) 2012년 1,762명, 2022년 1,775명으로 13명 감소로 이 연령대의 사회적 인구 증가
- (15세 미만) 15세 미만의 전입·전출 비율 많이 감소
-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동은 거의 비슷함

〈표 4〉 10년간 인구구조별 전입·전출 현황(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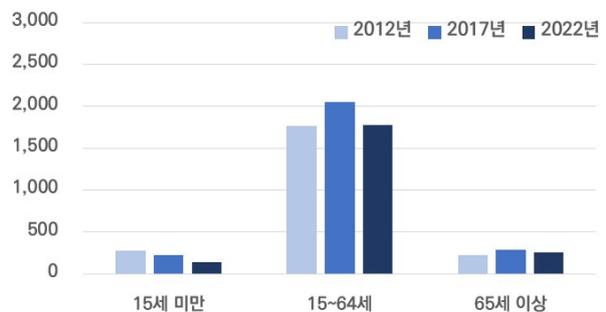
| 구분 | | 2012년 | | 2017년 | | 2022년 | |
|----|--------|-------|--------|-------|--------|-------|--------|
| | | 수 | 비율 | 수 | 비율 | 수 | 비율 |
| 전입 | 총전입자 | 2,312 | 100.0% | 3,019 | 100.0% | 2,428 | 100.0% |
| | 15세 미만 | 275 | 11.9% | 192 | 6.4% | 115 | 4.7% |
| | 15~64세 | 1,781 | 77.0% | 2,513 | 83.2% | 2,020 | 83.2% |
| | 65세 이상 | 256 | 11.1% | 314 | 10.4% | 293 | 12.1% |
| 전출 | 총전출자 | 2,268 | 100.0% | 2,563 | 100.0% | 2,172 | 100.0% |
| | 15세 미만 | 281 | 12.4% | 227 | 8.9% | 143 | 6.6% |
| | 15~64세 | 1,762 | 77.7% | 2,053 | 80.1% | 1,775 | 81.7% |
| | 65세 이상 | 225 | 9.9% | 283 | 11.0% | 254 | 11.7%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 2017년 생산가능인구의 전입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음



〈그림 4〉 인구구조별 전입 인구 현황



〈그림 5〉 인구구조별 전출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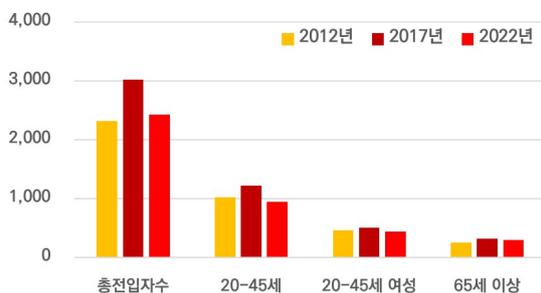
3. 최근 10년간 주요 연령별 전입·전출 변화

- (연령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확대 청년(20-45세)의 전입·전출 비중이 가장 높았음. 특히 전출은 50%를 넘음
- (확대 청년 전입 점점 감소) 2012년 44.1%, 2017년 40.2%, 2022년 39.0%로 점차 청년의 전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확대 청년 전출 비율 높음) 확대 청년의 전출 비율은 50%를 넘음
- (확대 여성 전출 비율 높음) 확대 여성의 전출 비율도 약 25%로 많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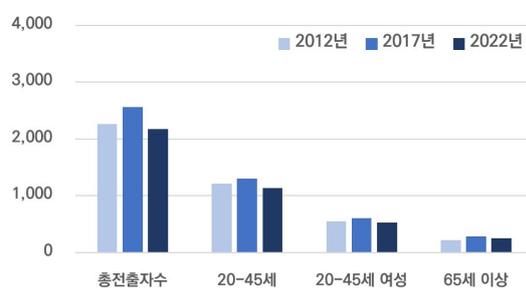
〈표 5〉 10년간 연령별 전입·전출 현황(명, %)

| 구분 | | 2012년 | | 2017년 | | 2022년 | |
|----|--------------|-------|--------|-------|--------|-------|--------|
| | | 수 | 비율 | 수 | 비율 | 수 | 비율 |
| 전입 | 총전입자 | 2,312 | 100.0% | 3,019 | 100.0% | 2,428 | 100.0% |
| | 확대 청년(20-45) | 1,019 | 44.1% | 1,214 | 40.2% | 946 | 39.0% |
| | 확대 여성(20-45) | 459 | 19.9% | 509 | 16.9% | 436 | 18.0% |
| | 고령자 | 256 | 11.1% | 314 | 10.4% | 293 | 12.1% |
| 전출 | 총전출자 | 2,268 | 100.0% | 2,563 | 100.0% | 2,172 | 100.0% |
| | 확대 청년(20-45) | 1,212 | 53.4% | 1,302 | 50.8% | 1,140 | 52.5% |
| | 확대 여성(20-45) | 549 | 24.2% | 609 | 23.8% | 527 | 24.3% |
| | 고령자 | 225 | 9.9% | 283 | 11.0% | 254 | 11.7%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그림 6〉 연령별 전입 시계열 현황



〈그림 7〉 연령별 전출 시계열 현황

03

청양군 전입·전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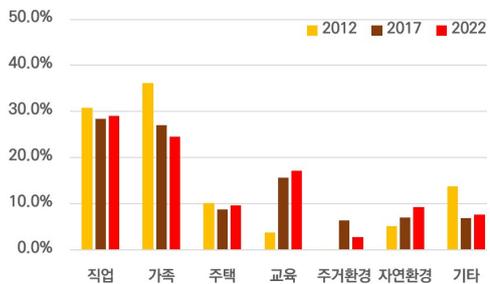
1. 전체 연령의 전입·전출 사유

- 전입 사유 - 2012년은 가족, 2017년 직업, 가족, 2022년 직업으로 인한 전입 높음
- 전출 사유 - 2012년 가족, 2017년 가족, 2022년 가족과 직업으로 인한 전출 높음
- 청양은 직업으로 인한 전입이 높으며, 전출은 가족으로 인한 전출이 비교적 높았음
- 그러나 최근 직업으로 인한 전출도 높아짐
- 전입 사유로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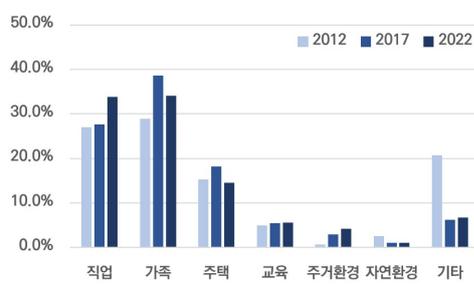
〈표 6〉 10년간 전입·전출 사유- 전체 연령(%)

| 구분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간경) | 기타 |
|----|-------|-------|-------|-------|-------|----------|-------|
| 전입 | 2012년 | 30.8% | 36.2% | 10.1% | 3.8% | - | 14.0% |
| | 2017년 | 28.5% | 27.0% | 8.8% | 15.6% | 6.3% | 6.8% |
| | 2022년 | 29.1% | 24.5% | 9.7% | 17.1% | 2.7% | 7.7% |
| 전출 | 2012년 | 27.0% | 28.9% | 15.3% | 4.9% | - | 21.3% |
| | 2017년 | 27.6% | 38.7% | 18.1% | 5.4% | 2.9% | 6.2% |
| | 2022년 | 33.8% | 34.1% | 14.5% | 5.6% | 4.2% | 6.7%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그림 8〉 전입 사유 - 전체



〈그림 9〉 전출 사유-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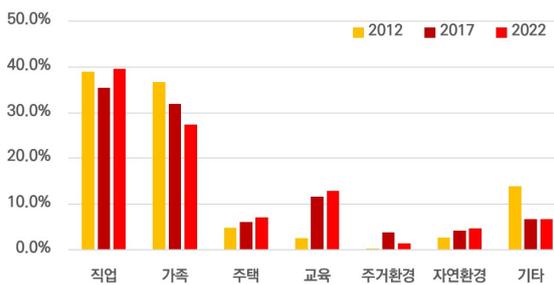
2. 확대 청년(20-45세)의 전입·전출 사유

- 전입 사유 - 2012년과 2017년 직업>가족이었다가 2022년은 직업으로 인한 전입이 높음
- 전출 사유 - 압도적으로 직업으로 인한 전출 높음(2017년에는 직업과 가족 사유가 거의 동일)
- 주택으로 인한 전출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
- 교육으로 인한 전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교육으로 인한 전출은 10년간 거의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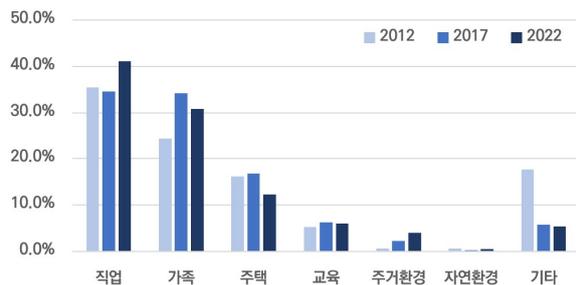
〈표 7〉 10년간 전입·전출 사유 - 확대 청년(20-45세, %)

| 구분 |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기타 |
|----|-------|-------|-------|-------|-------|------|------|-------|
| 전입 | 2012년 | 39.1% | 36.7% | 4.8% | 2.6% | 0.3% | 2.7% | 13.8% |
| | 2017년 | 35.5% | 32.0% | 6.1% | 11.6% | 3.9% | 4.2% | 6.7% |
| | 2022년 | 39.6% | 27.5% | 7.1% | 12.9% | 1.5% | 4.8% | 6.7% |
| 전출 | 2012년 | 35.5% | 24.4% | 16.1% | 5.2% | 0.7% | 0.6% | 17.6% |
| | 2017년 | 34.6% | 34.2% | 16.7% | 6.2% | 2.3% | 0.2% | 5.7% |
| | 2022년 | 41.1% | 30.8% | 12.3% | 6.1% | 3.9% | 0.4% | 5.4% |

자료 :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그림 10〉 전입 사유 - 확대 청년(20-45세)



〈그림 11〉 전출 사유 - 확대 청년(20-45세)

3. 확대 여성 청년(20-45세)의 전입·전출 사유

- 전입 사유 - 2012년과 2017년에는 가족으로 인한 전입 → 2022년 직업으로 인한 전입
- 전출 사유 - 2012년과 2017년에는 가족으로 인한 전출 → 2022년 직업으로 인한 전출
- 주택으로 인한 전입이 최근 증가
- 교육으로 인한 전입이 약 10%로 높으며, 교육으로 인한 전출은 증가하지 않음
- 주거환경으로 인한 전출이 다소 증가함

〈표 8〉 10년간 전입·전출 사유 - 확대 여성 청년(여성 20-45세, %)

| 구분 |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기타 |
|----|-------|-------|-------|-------|-------|------|------|-------|
| 전입 | 2012년 | 32.5% | 40.7% | 5.6% | 2.8% | 0.0% | 3.2% | 15.2% |
| | 2017년 | 30.3% | 37.1% | 5.5% | 10.8% | 3.7% | 4.9% | 7.7% |
| | 2022년 | 37.8% | 29.6% | 8.5% | 9.6% | 1.6% | 5.5% | 7.3% |
| 전출 | 2012년 | 28.1% | 30.2% | 14.9% | 5.6% | 0.5% | 0.9% | 19.7% |
| | 2017년 | 31.7% | 35.8% | 16.9% | 7.4% | 2.6% | 0.3% | 5.3% |
| | 2022년 | 40.8% | 31.7% | 11.6% | 6.3% | 4.6% | 0.9% | 4.2% |

자료 :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그림 12〉 전입·전출 사유 - 확대 여성 청년(20-45세)

〈그림 13〉 전입·전출 사유 - 확대 여성 청년(20-45세)

4. 고령자의 전입·전출 사유

- 전입 사유 : 가족으로 인한 전입이 주요 사유이나 점점 비율이 감소, 최근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입 증가
- 전출 사유 : 가족으로 인한 전출 압도적(40% 이상), 주택으로 인한 전출은 2순위임

〈표 9〉 10년간 전입·전출 사유 - 고령자(65세 이상, %)

| 구분 |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기타 |
|----|-------|-------|-------|-------|------|-------|-------|-------|
| 전입 | 2012년 | 10.5% | 41.4% | 23.0% | 0.8% | 0.0% | 13.7% | 10.5% |
| | 2017년 | 11.5% | 31.5% | 20.7% | 0.0% | 12.7% | 14.0% | 9.6% |
| | 2022년 | 14.3% | 25.9% | 17.7% | 0.3% | 8.5% | 22.5% | 10.6% |
| 전출 | 2012년 | 2.7% | 44.4% | 20.9% | 0.4% | 0.4% | 10.2% | 20.9% |
| | 2017년 | 6.0% | 43.1% | 26.5% | 0.7% | 8.5% | 6.0% | 9.2% |
| | 2022년 | 7.5% | 40.9% | 26.8% | 0.0% | 9.1% | 3.5% | 12.2% |

자료 :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그림 14〉 전입 사유 - 고령자(65세 이상)

〈그림 15〉 전출 사유 - 고령자(65세 이상)

04

청양군 주요 전입·전출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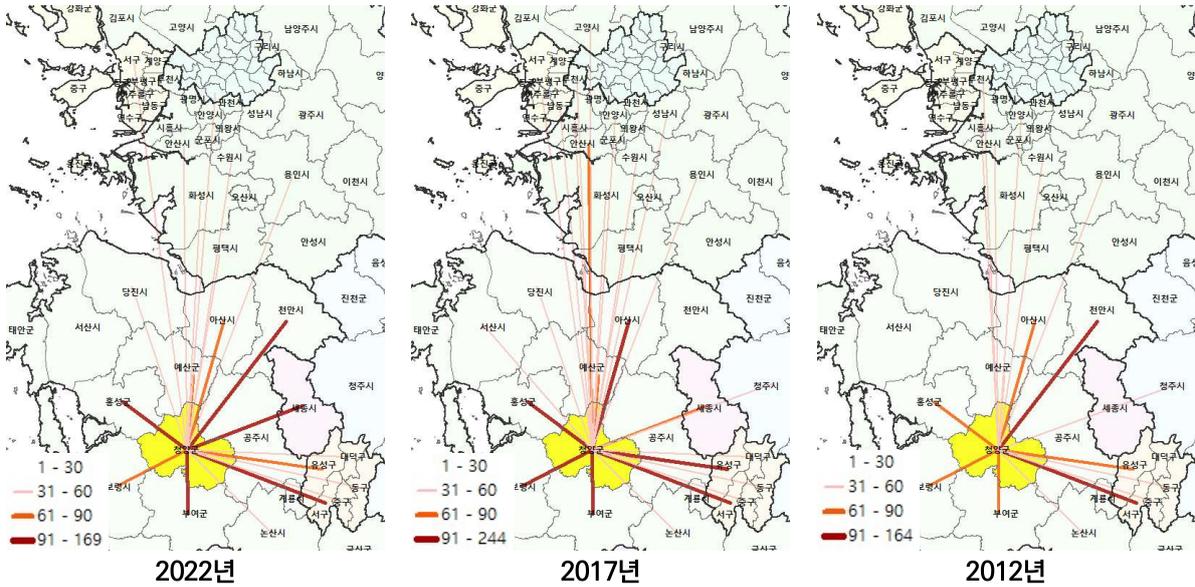
1. 주요 전입지 현황

- 2012년 전입지는 공주시 7.1%, 대전서구 6.7%, 천안시 4.5%, 부여군 3.5%, 보령시 3.3% 순
- 2017년 전입지는 공주시 8.1%, 천안시 5.8%, 홍성군 4.8%, 보령시와 대전서구 4.1% 순
- 2022년 전입지는 공주시 7.0%, 천안시 6.2%, 세종시 5.0%, 홍성군 4.9%, 대전서구 4.6% 순
- 공주시, 천안시, 홍성군, 대전, 부여군, 보령시가 주요 전입지임
-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하나의 대전광역시로 보았을 때 2012년 10.0%, 2017년 7.4%, 2022년 7.6%로 청양군 전입인구의 1, 2순위 지역임

〈표 10〉 주요 전입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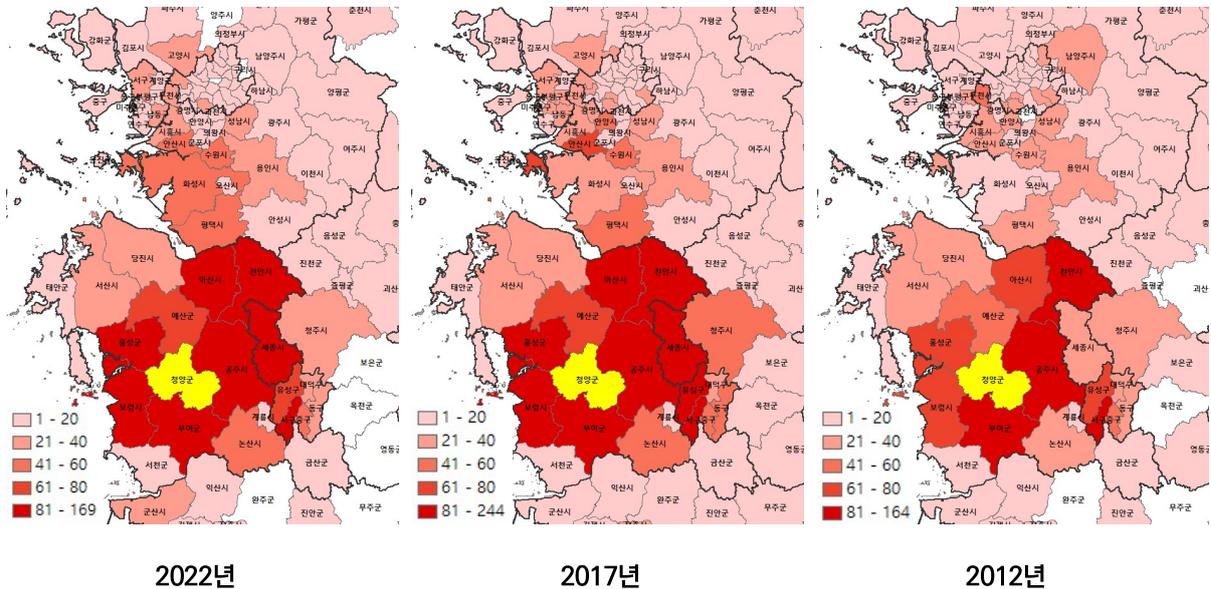
| 구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9순위 | 10순위 | 11순위 |
|-------|------|------|------|------|------|------|-------|-------|------|-------|------|------|
| 2012년 | 시군명 | 공주시 | 대전서구 | 천안시 | 부여군 | 보령시 | 대전유성구 | 홍성군 | 아산시 | | | |
| | 전입수 | 164 | 154 | 105 | 81 | 77 | 76 | 67 | 65 | | | |
| | 전입비율 | 7.1% | 6.7% | 4.5% | 3.5% | 3.3% | 3.3% | 2.9% | 2.8% | | | |
| 2017년 | 시군명 | 공주시 | 천안시 | 홍성군 | 보령시 | 대전서구 | 부여군 | 대전유성구 | 아산시 | 세종시 | 인산시 | 예산군 |
| | 전입수 | 244 | 174 | 144 | 124 | 123 | 110 | 99 | 94 | 86 | 75 | 70 |
| | 전입비율 | 8.1% | 5.8% | 4.8% | 4.1% | 4.1% | 3.6% | 3.3% | 3.1% | 2.8% | 2.5% | 2.3% |
| 2022년 | 시군명 | 공주시 | 천안시 | 세종시 | 홍성군 | 대전서구 | 부여군 | 아산시 | 보령시 | 대전유성구 | 예산군 | |
| | 전입수 | 169 | 150 | 122 | 118 | 111 | 98 | 85 | 82 | 74 | 62 | |
| | 전입비율 | 7.0% | 6.2% | 5.0% | 4.9% | 4.6% | 4.0% | 3.5% | 3.4% | 3.0% | 2.6% | |

자료 :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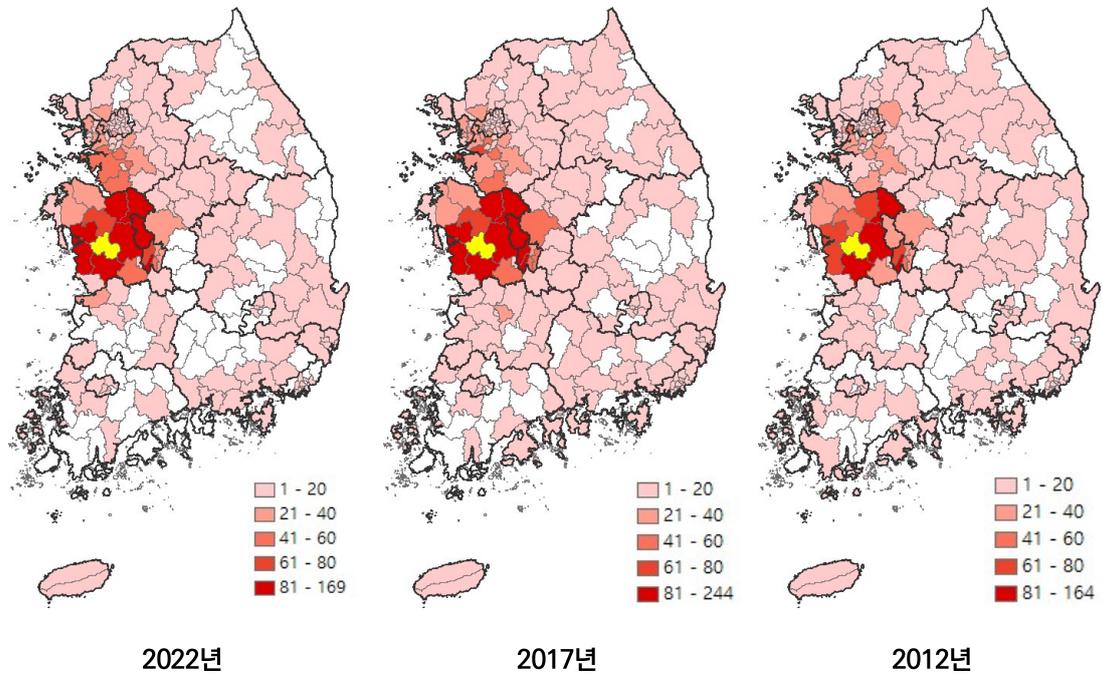
〈그림 16〉 주요 전입지 시계열 분포

● 청양군 전입인구는 대전, 세종, 안산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충청남도 시군에서의 이동임



〈그림 17〉 청양군 인군 전입지 시계열 분포

● 전입인구 이동 시군구 분석 결과 충청남도, 대전, 경기도까지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음



〈그림〉 전입지 시계열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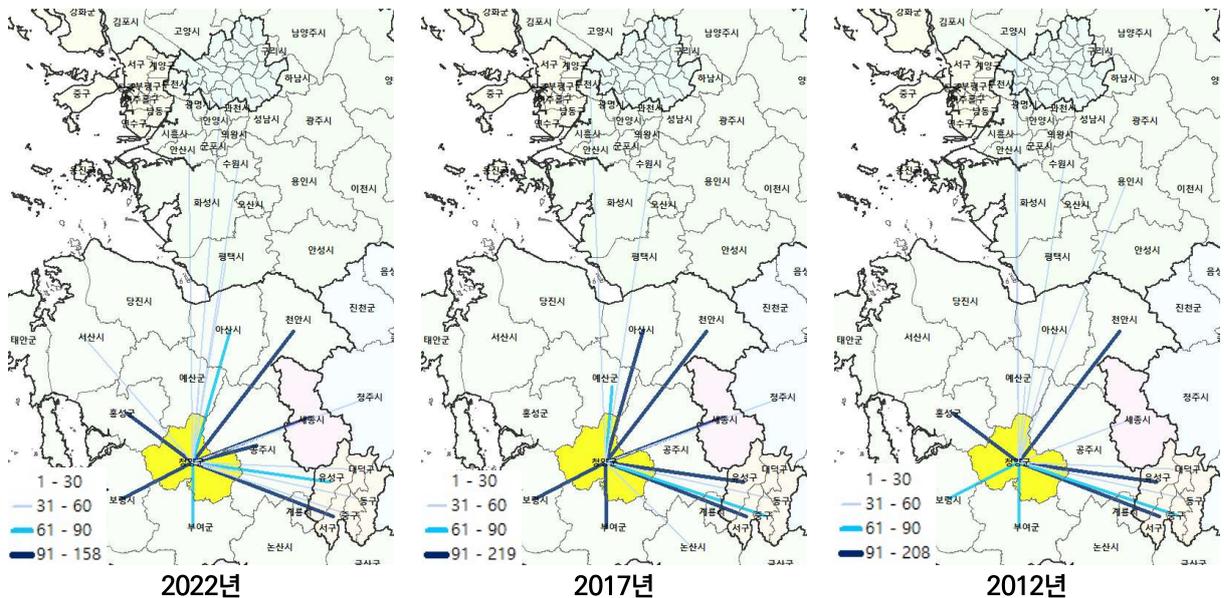
2. 주요 전출지 현황

- 2012년 전출지는 공주시 9.2%, 대전 서구와 천안시 6.2%, 홍성군 5.2%, 대전 유성구 4.5% 순(대전광역시로 보았을 때 대전광역시 13.5%로 1순위임)
- 2017년 전출지는 공주시 8.5%, 홍성군 7.0%, 천안시 6.2%, 대전 서구 5.5%, 보령시 5.2% 순(대전광역시로 보았을 때 대전광역시 12.7%로 1순위임)
- 2022년 전출지는 공주시 7.3%, 세종시 6.0%, 대전 서구 5.4%, 천안시 5.4% 순(대전광역시로 보았을 때 대전광역시 9.0%로 1순위임). 청양군민의 주요 전출지는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충청남도내 이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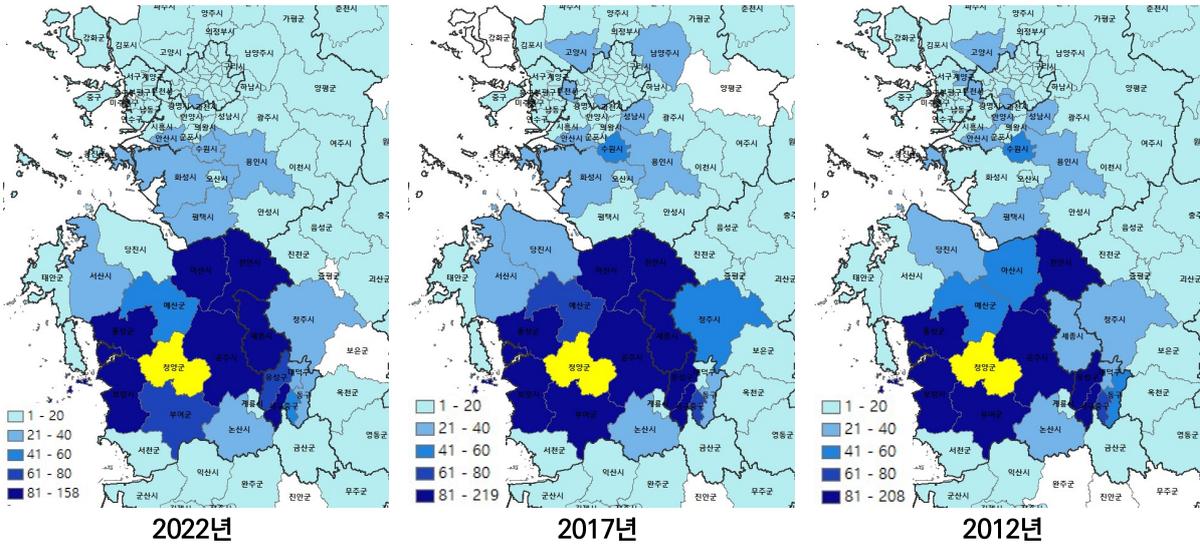
〈표 11〉 주요 전출지 현황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9순위 | 10순위 | 11순위 |
|-------|------|------|-------|-------|-------|-------|-------|------|-------|------|------|------|
| 2012년 | 시군명 | 공주시 | 대전광역시 | 천안시 | 홍성군 | 대전유성구 | 부여군 | 보령시 | 대전중구 | | | |
| | 전출수 | 208 | 140 | 140 | 118 | 101 | 84 | 83 | 63 | | | |
| | 전입비율 | 9.2% | 6.2% | 6.2% | 5.2% | 4.5% | 3.7% | 3.7% | 2.8% | | | |
| 2017년 | 시군명 | 공주시 | 홍성군 | 천안시 | 대전광역시 | 보령시 | 대전유성구 | 세종시 | 부여군 | 아산시 | 예산군 | 대전중구 |
| | 전출수 | 219 | 180 | 162 | 142 | 130 | 124 | 119 | 91 | 91 | 70 | 62 |
| | 전입비율 | 8.5% | 7.0% | 6.3% | 5.5% | 5.1% | 4.8% | 4.6% | 3.6% | 3.6% | 2.7% | 2.4% |
| 2022년 | 시군명 | 공주시 | 세종시 | 대전광역시 | 천안시 | 홍성군 | 보령시 | 아산시 | 대전유성구 | 부여군 | | |
| | 전출수 | 158 | 130 | 117 | 117 | 110 | 91 | 87 | 78 | 69 | | |
| | 전입비율 | 7.3% | 6.0% | 5.4% | 5.4% | 5.1% | 4.2% | 4.0% | 3.6% | 3.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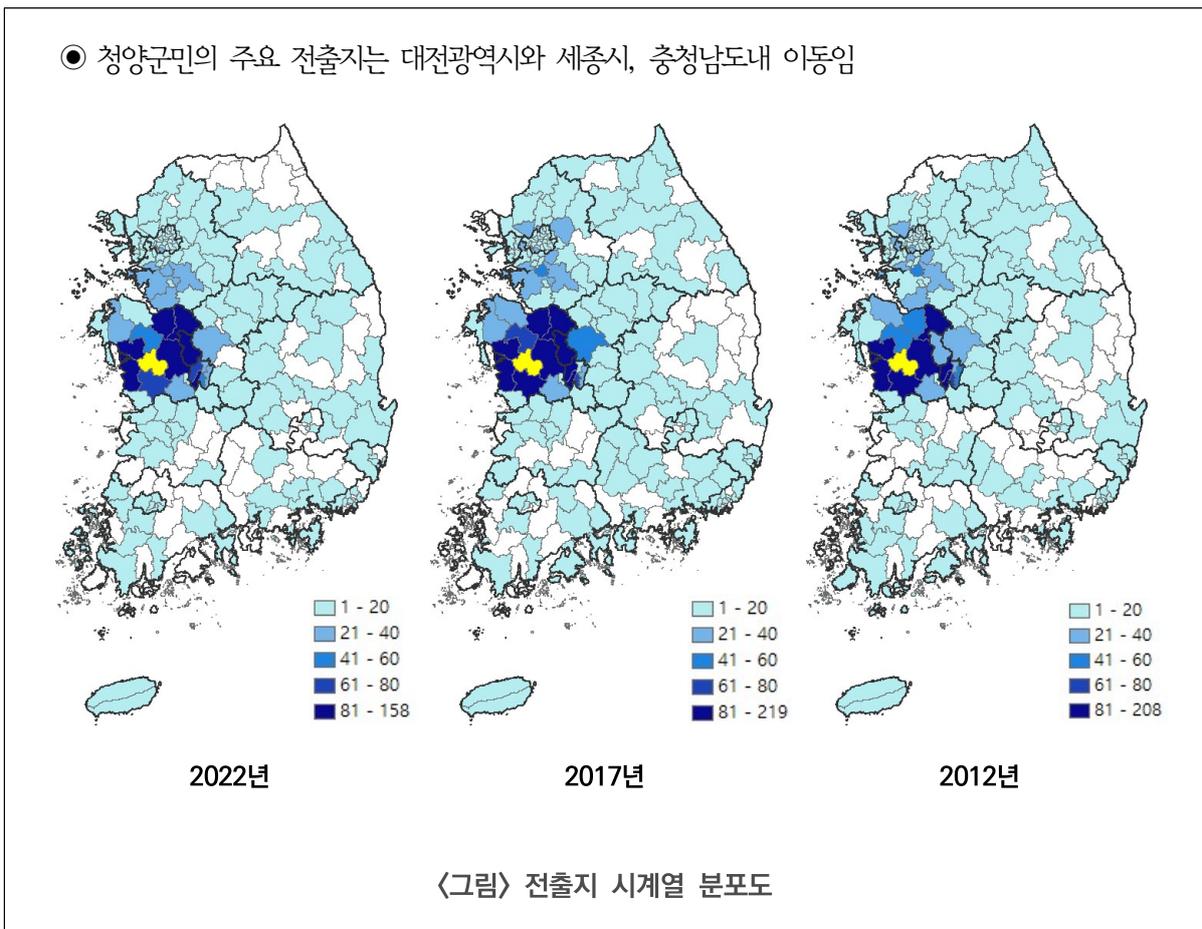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3,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그림 18〉 주요 전출지 분포



〈그림 19〉 청양군 인근 전출지 시계열 분포



05 결론

- 사회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청양군 전입·전출 시계열 분석 수행(2012년, 2017년, 2022년)한 결과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더 많아 사회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2018~2020년을 제외)
 - 특히 2015~2017년은 약 500여명의 순이동(전입-전출), 작년 2022년에도 약 250명의 순이동이 나타나 사회적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청양군 사회적 인구의 이동 특성은 충남도내의 전입·전출 많음(30~40%)
 - 2012년 31.1%(719명), 2017년 37.6%(1,136명), 2022년 37.8%(918명)의 충남도 거주자가 청양군으로 전입하여 충남도내 거주자의 청양군 전입이 늘어나고 있음
 - 2022년 37.2%, 2017년 42.2%, 2012년 36.9%가 충남도로 전출하여 충남도내의 전출자도 다소 증가
- 청양군민의 주요 전입·전출지는 대전광역시, 세종시,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도내 이동임
 - 주요 전입지는 인접한 공주시와 충청남도이며 대도시로는 대전광역시, 세종시임
 - 주요 전출지는 공주시, 세종시, 대전, 천안시이며, 청양군민의 주요 전출지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내 이동임
- 생산가능인구의 전입·전출이 80%를 넘음
 - (15-64세) 주요 전입·전출 연령은 15-64세가 80%를 넘음
 - 그러나 최근 10년간 전입 239명 증가, 전출 13명 감소로 사회적 인구가 다소 증가한 연령대임

- 확대 청년 전입 점점 감소, 전출 비율 50% 넘음
 - 2012년 44.1%, 2017년 40.2%, 2022년 39.0%로 점차 청년의 전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확대 청년의 전출 비율은 50%를 넘음
- 확대 여성 전출 비율도 25%를 넘음
 - 확대 여성의 전출 비율도 약 25%로 많은 편임
- (전입) 청양은 직업으로 인한 전입이 높으며,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입 지속적 증가
 - 전입 사유는 가족 - 직업, 가족 - 직업이 주를 이룸
 - 2012년은 가족, 2017년 직업, 가족, 2022년 직업으로 인한 전입 높음
 -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출) 과거에는 가족으로 인한 전출이었다면 최근에는 가족과 직업으로 인한 전출이 높음
 - 전출 사유는 가족 - 가족 - 가족과 직업
 - 2012년 가족, 2017년 가족, 2022년 가족과 직업으로 인한 전출 높음
- 청년들의 전입·전출 사유는 일자리임
 - 최근 청양군으로 전입한 청년(확대 청년, 확대 여성 청년)들은 직업으로 인한 전입이 높았으며, 전출도 일자리로 인한 전출 비율도 높아짐
- 확대 청년들은 교육으로 인한 전입이 증가하고 있음
 - 청양군의 변화로 초등학교 교육 및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고령자는 가족으로 인한 전입이 주요 사유이나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입이 증가
 - (전입) 고령자의 경우 주로 가족으로 인한 전입이 주요 사유이나 점점 비율이 감소
 - (전입) 최근 자연환경으로 인한 전입 증가
 - (전출) 가족으로 인한 전출 압도적(40% 이상), 주택으로 인한 전출은 2순위임